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주정



예기치 않는 일이 눈 앞에 벌어질 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안다면 진정한 의미의 위기가 아니다. 모를 때가 위기다. 요즘 세계 경제가 그렇다. 세계 경제는 지난 연말 겨우 한고비 넘겼는가 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모양이다. 금융위기가 더 올 것이라는 불길한 예보가 새해벽두부터 들려온다. '금융 쓰나미'의 진양 미국으로부터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케네스 로코프 하버드 교수는 지난 3일 미국경제학자 모임인 전미경제학회(AEA)에서 "금융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 앞으로 2~3개의 소용돌 이를 더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금융위기는 더 깊고 오래갈 것이라는 진단도 덧붙였다.

“더 큰 금융위기 온다”

로버트 휴스턴퍼드대 교수는 한 술 더

뜬다. 금융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란다. 이쯤이면 미국과 밀접하게 연동된 한국금융시스템은 그 존재 의미조차 사라질 수 있다. '강대국의 흥망'을 쓴 폴 캐네디 예일대 교수도 "한국, 광산업 개발 등의 한국형 녹색 뉴딜 등이

위기의 시대 살아가기

일본 등 전통적으로 수출에 의존해 온 아시아 국가들은 올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대기업 CEO 출신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29차례나 언급할 정도다. 절망적이다.

그렇다면, 정말 어둠뿐인가. 빛이 스며들 틈이 없는 어둠도 없듯, 절망 속에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새해에는 한국, 인도, 중국 등 이른바 ICK(India, China, Korea)에 국제투자가들이 몰릴 것이라고 보도했

위기극복의 견인차가 될 요소로 꼽혔다. 연구원은 한발 더 나아가 세계 금융산업이 큰 타격을 보면서 제조업이 다시 국가 경쟁력의 주요 장대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커졌고,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의 튼튼한 제조업 기반을 잘 활용하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고무적이다. "지금 주식 사면 1년 안에 부자 된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다. 이 정도면 해 볼만하다. 대기업

CEO들의 신년사에서도 희망이 읽혀진다. 삼성그룹은 "대나무는 마디를 맷으며 더 강해지고 연은 바람이 거슬수록 더 높이 난다"는 말로 투자를 불태웠다. 한국전쟁, 1, 2차 오일쇼크, 외환위기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찾아온 한국인의 저력을 엿보인다.

세계시장 주도할 수 있다

위기극복의 해법도 제시됐다.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고객이 원하는 차를 공급하겠다"고 다짐했다. GS그룹은 "실패의 원인은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내리는 비야 막을 수 없지만, 우산은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시간이 없다. 글로벌 불황이라는 먹구름이 이미 가까이 왔다. 조민간 연쇄 부도, 대량실업 같은 폭풍우가 몰아칠 것이다. 맞서 이기기는 힘들다. 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당장 실행해 옮기는 것이 더 현명하다.

폭풍우는 거칠수록 빨리 지나간다. 지난 뒤의 하늘은 더 높고 푸르다. 그 하늘은 희망을 잃지 않고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경제부> jinews@kwangju.co.kr

시설

오락실 경찰비리에 간부까지 연루됐다니

서행성 오락실 단속 과정에서 금품을 쟁기 간부급 현직 경찰관들이 검찰에 체포돼 충격이다.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검은 6일 광주 서부경찰서 간부급 경찰관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구 일대의 불법 사행성 오락실 단속 과정에서 업주들로부터 수백만원씩의 뇌물을 받아 행기고 불법 영업을 눈 감아 줬다고 한다. 더욱이 이들은 일선 지구대 관리·감독과 사행성 오락실 단속을 지휘하는 책임자와 지구대 대장과 팀장이었다고 하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 풀이다.

이들의 비리 행각은 지난해 모 지역 대 소속 경찰들의 오락실 비리 수사와 정에서 들통이 난 것으로 밝혀졌다. 일선 경찰과 지휘계통에 있는 간부들이 한통속이 돼 오락실 불법영업을 눈감아 주고 뇌물을 쟁기 것이다. 이러니 사행성 오락실이 사라질 리 있겠는가.

정부 실업대책 '숫자놀음' 안된다

새해 들어 정부 각 부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 부처가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내놓은 신규 일자리를 모두 합치면 무려 42만개에 이른다.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간접적인 고용 창출 목표까지 더하면 100만개도 넘는다. 정부는 6일에도 4년간 50조원을 들여 일자리 96만개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 사업'을 확정·발표했다.

일자리 창출은 국정 제1과제로 삼고 고군분투하는 정부의 노력을 보는 바는 아니다. 4대강 정비와 고속철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밤상도 현 경제상황의 긴 박성과 시급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수긍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은 사실 중구난방적 성격이 짙고, 실효성이 의심된다.

우선 정부 부처의 일자리 대책이란

제 공사 일부, 청소 인력, 업무 보조 등 대부분이 불안정하고 임무성 일자리 일색이란 점이다. 과거 정부가 시행한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자칫 잘못하면 비정규직 양산이란 또 다른 사회적 문제점을 낳을 수도 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의욕적으로 내놓은 행정인턴도 초장부터 겉돌고 있다. 지원자가 모집정원에도 미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고, 행정인턴을 고용하는 자자체나 각급 기관에서도 이를 통해 무슨 일을 시킬지 모르는 상황이 많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자리 대책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밀그림이 없다는 것이다. 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미래산업이나 첨단산업에 대한 법정부 차원의 투자나 기업에 대한 혁기적인 고용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업 문제에 있어 '숫자놀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無等鼓

옛 중국에서는 쌀을 일려 '가소(嘉疏)' 곧 '신령에 바칠 공경할 만한 곡식'으로 불렸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 조상들도 주수와 함께 거둔 헛쌀을 '성주 단지'에 넣었다가 제수(祭需)로 받침 만큼 '성곡(聖穀)' 예우를 해왔다.

가깝게는 30여년 전 저쪽까지만 해도 분식이니 훈식장려니 해서 쌀을 귀히 여기던 시절이 기억에 새롭다.

그린 '성스러운' 쌀이 설움을 당하고 있다.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찬밥을 맞은 채 말이다. 아무리 정부의 잘못된 농정을 꾸짖는 상징적인 희생 물로 치부하려 해도, 쌀의 가벼움이 안타깝기만 하다.

쌀이 훌대를 받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 햄가족화 시대를 맞아 페스트푸드가 범람한데다 외국산 수입 등으로 인해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여년 전에 비해 60% 넘게 줄어든 78.8kg에 불과하다. 소비량이 줄어들면 서 덤덤하고 그 가치도 떨어져 도시 소비

자가 하루 세끼에 지출하는 쌀값은 600원을 밀돌고 고급커피값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다.

그렇다고 해서 쌀을 가벼이 여겨서는 큰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 지난해 지구촌을 뒤흔들었던 '식량 대란'은 이를 증명해준다. 주요 쌀 수출국들이 빗장을 걸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배급 제까지 실시해 '쌀 위기'가 발등의 불이

라는 것을 보여줬다. 갈수록 지구촌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경지면적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같은 위기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쌀을 포함해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곡자급률에 그치고 있는 우리나라로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업 프렌들리'를 앞세워 경지면적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매년 절대농지가 줄어들고, 농민들이 땅을 떠나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게 우리 정부다.

농민들이 자식처럼 아끼는 땅을 아직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종태 사회 2부장 jilee@kwangju.co.kr

무등산 예찬

지금보다 약간 더 짧았을 때는 거의 해마다 1월 1일이면 해맞이를 하려고 무등산에 오르곤 했다. 새벽녘 그 저독한 한기는 정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들게 했지만, 일단 나서기만 하면 좋은 친구들이 함께 했고, 무등산의 신선함이 오롯이 살아있어 그지없이 좋은 추억이었다.

오늘 아침 배란다 문을 열고 무등산 쪽을 바라보니 꼭대기에 구름을 모자랐을 때는 물론 햇살을 배경으로 하얀 무등산 꼭대기가 드러나 있었다. 이국적인 사진 속 키티만자로나 후지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겨울이면 하얀 눈을 머물렀다.

무등산 예찬

자연유산이다. 입석대와 서석대를 보고 나서 보리밥 한 그릇을 비우면 그 손님은 행성 주역으로 광주를 간직한다.

동네 빛산을 오르다 보면 요즘 말로 2% 부족함을 향상 느낀다. 첫째는 식생이 너무 단조롭고, 둘째는 등산거리가 너무 짧고, 셋째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마치 산이라기 보단 근처 균형공원을 산책하고 있는 그런 느낌뿐이다. 하지만 무등산은 초입부터 다양한 들꽃과 아름드리 나무들이 우릴 반긴다. 중봉까지 오르는데 등줄기가 충분히 촉촉해 질 정도로 기분 좋게 힘들다. 처음엔 사람이 많았다가도 어느새 나 혼자 호

았다.

오늘 아침 무등산을 바라보면서 혹시 누가 새해 소망이라도 빌리면, 무등산을 맑은 밖으로 한없이 부드럽고 안으로는 한없이 강한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 고을 나아가 우리나라를 행복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 중봉 위에는 누군가 텁처럼 만들 어놓은 것 같은 입석대와 서석대가 있다. 이 두 곳은 내가 보기에도 황상 기파한 곳이지만, 외부의 손님과 함께 올라도 어느 누구든 입장에서 절로 감탄사를 연발하게 하는 우리 빛고을의 자랑스런

(주부·2005년 12월 수상자)

리에 인 아름다운 산이 있는 것이다.

무등산은 한자 뜻대로라면 등수가 없는 산이다.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을 자꾸 서열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함께 가자는 이 무등의 참뜻을 위정자나 교육자들이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무등산은 이름만이 아니라 한참을

오르면 거대한 평원이 눈앞에 펼쳐진다. 바로 중봉 또는 중거리재라고 부르는 곳이다. 이 곳에선 겨울철 해맞이는 물론 봄엔 진달래, 가을엔 억새가 어우러져 이색적인 장관을 연출한다. 마치 광주시민을 다 품고 남을 곳 같은 곳이다.

오늘 아침 무등산을 바라보면서 혹시 누가 새해 소망이라도 빌리면, 무등산을 맑은 밖으로 한없이 부드럽고 안으로는 한없이 강한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 고을 나아가 우리나라를 행복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 주제는 2005년 12월 수상자

이전에 인 아름다운 산이 있는 것이다.

무등산은 한자 뜻대로라면 등수가 없는 산이다.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을 자꾸 서열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함께 가자는 이 무등의 참뜻을 위정자나 교육자들이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무등산은 이름만이 아니라 한참을

오르면 거대한 평원이 눈앞에 펼쳐진다. 바로 중봉 또는 중거리재라고 부르는 곳이다. 이 곳에선 겨울철 해맞이는 물론 봄엔 진달래, 가을엔 억새가 어우러져 이색적인 장관을 연출한다. 마치 광주시민을 다 품고 남을 곳 같은 곳이다.

오늘 아침 무등산을 바라보면서 혹시 누가 새해 소망이라도 빌리면, 무등산을 맑은 밖으로 한없이 부드럽고 안으로는 한없이 강한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 고을 나아가 우리나라를 행복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 주제는 2005년 12월 수상자

이전에 인 아름다운 산이 있는 것이다.

무등산은 한자 뜻대로라면 등수가 없는 산이다.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을 자꾸 서열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함께 가자는 이 무등의 참뜻을 위정자나 교육자들이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무등산은 이름만이 아니라 한참을

오르면 거대한 평원이 눈앞에 펼쳐진다. 바로 중봉 또는 중거리재라고 부르는 곳이다. 이 곳에선 겨울철 해맞이는 물론 봄엔 진달래, 가을엔 억새가 어우러져 이색적인 장관을 연출한다. 마치 광주시민을 다 품고 남을 곳 같은 곳이다.

오늘 아침 무등산을 바라보면서 혹시 누가 새해 소망이라도 빌리면, 무등산을 맑은 밖으로 한없이 부드럽고 안으로는 한없이 강한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 고을 나아가 우리나라를 행복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 주제는 2005년 12월 수상자

이전에 인 아름다운 산이 있는 것이다.

무등산은 한자 뜻대로라면 등수가 없는 산이다.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을 자꾸 서열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함께 가자는 이 무등의 참뜻을 위정자나 교육자들이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무등산은 이름만이 아니라 한참을

오르면 거대한 평원이 눈앞에 펼쳐진다. 바로 중봉 또는 중거리재라고 부르는 곳이다. 이 곳에선 겨울철 해맞이는 물론 봄엔 진달래, 가을엔 억새가 어우러져 이색적인 장관을 연출한다. 마치 광주시민을 다 품고 남을 곳 같은 곳이다.

오늘 아침 무등산을 바라보면서 혹시 누가 새해 소망이라도 빌리면, 무등산을 맑은 밖으로 한없이 부드럽고 안으로는 한없이 강한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 고을 나아가 우리나라를 행복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 주제는 2005년 12월 수상자

이전에 인 아름다운 산이 있는 것이다.

무등산은 한자 뜻대로라면 등수가 없는 산이다.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을 자꾸 서열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함께 가자는 이 무등의 참뜻을 위정자나 교육자들이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무등산은 이름만이 아니라 한참을

오르면 거대한 평원이 눈앞에 펼쳐진다. 바로 중봉 또는 중거리재라고 부르는 곳이다. 이 곳에선 겨울철 해맞이는 물론 봄엔 진달래, 가을엔 억새가 어우러져 이색적인 장관을 연출한다. 마치 광주시민을 다 품고 남을 곳 같은 곳이다.

오늘 아침 무등산을 바라보면서 혹시 누가 새해 소망이라도 빌리면, 무등산을 맑은 밖으로 한없이 부드럽고 안으로는 한없이 강한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 고을 나아가 우리나라를 행복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